

Opinion Leader

최종표 발행인



런던올림픽에서 드러난 위대한 '민족정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구촌 최대 스포츠제전인 '2012 런던올림픽'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사실상 이번 올림픽은 내·외적으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총 204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당당히 종합 5위를 기록하며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원정 올림픽 역대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골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응원했다. 때로는 환희에, 가끔은 분통을 터트리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 지난 17일간의 열정.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진정 위대함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결과로 이어진 올림픽의 개최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올림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초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1500년 동안 중단됐던 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당시 올림픽을 부활시킨 쿠베르탱 남작의 의도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자국이 패하자, 정신적 침체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다.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새 집행부 '출항'

신임회장 정경모, 부회장 최상수 등 이사진 선출, 사무총장 황영진 임명

합기도 단체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출항'을 시작했다.

대한기도회는 그동안 연이은 소송으로 '소송천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결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경모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하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날 황영진 회장직무대행은 "우선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경모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대한기도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



겠다"고 밝혔다.

새 집행부에는 회장 정경모, 부회장 최상수,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선출됐으며, 그동안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황영진씨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경모 신임회장은 스페인합기도협회 조두형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해외협회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유기호 기자